

반딧불이 탐사 문의전화 쇄도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부문 부동의 1위 군건 3600여명 인터넷 예약 완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에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해마다 '방문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9.1.~9.)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별 총총한 밤하늘을 이고 서 지상의 별, 반딧불이를 보는 재미가 넘는다.

올해는 탐사처량에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장치 강화, 안내를 위한 청소년 반딧불탐사대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등 탐사 여건을 대폭 개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스페셜 탐사(이하 원정대/참가비 1인 1만 5천 원)와 일반 탐사(1인 1만 원)로 진행되며 원정대에는 곤충학자가 동행해 반딧불이의 생태와 일상을 꼼꼼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탐사증도 발급해준다.

무주군 반딧불이연구소 정재훈 주무관은 "현재 인터넷으로 접수가 진행

라 탐사변수를 동반하는 반딧불이의 특성을 감안해 축제장(예천문화관)에도 반딧나라관(주제관)을 마련했다.

반딧나라관은 반딧불이의 생태부터 발광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한 밥에 서식지로 떠나는 신비탐사가 어렵거나 반딧불이의 생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배우고 싶다면 이곳을 찾으면 된다.

올해는 살아있는 반딧불이 외에도 3D 홀로그램, 트리아트를 설치해 환상적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마술공연, 반딧불이와 곤충만들기 체험을 도입해 재미를 배가시켰다.

1관에는 반딧불이 생태학습관과 반딧나라관(홀로그램, 트리아트), 형설지공관(반딧불이체험)이 마련돼 반딧불이의 서식환경과 일생, 반딧불이를 볼 수 있으며, 2관에는 반딧나라관과 반딧나라관(홀로그램, 트리아트), 형설지공관(반딧불이체험)이 마련돼 반딧불이의 일생을 영상물로 보면서 하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신비탐 무예에는 반딧나라관(홀로그램, 트리아트)이 마련된다.

주민 김 모 씨(무주읍, 38)는 "무주에 살면서도 정작 서식지로는 반딧불이를 보려는 안 가봤다"라며 "아이와 초등학생이라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신비탐사도 해보고 주제관도 많이 달려다니 꼭 가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서 '지역혁신가' 탄생

송영식씨 농업농촌 분야 지역 우수 인재로 선정



무주군은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원장인 송영식(사진) 씨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로부터 '지역혁신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람 중심 국가균형발전의 주인공' 지역혁신가는 지역 곳곳, 삶의 현장에서 묵묵한 혁신활동을 펼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지역 우수인재)을 말하는 것으로, 송영식 씨는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마을발전과 주민행복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송영식 씨는 2천년에 무주군에 관광안내소 설립을 제안, 자원봉사자로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으뜸관광지' 무주군의 명성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2017년부터는 무주읍 후도마을 '하늘섬 산촌 유학센터' 운영자로 나서 '자연체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중 '나너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학생 및 가족 체험과 대상 농촌체험 휴양 마을연계 프로그램은 마을소득 향상과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으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을 발굴하고 오지 배후마을까지 문화서비스를 배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위

원장으로서 농촌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조영자 도시개발 담당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혁신가가 나온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며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 지역혁신가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예술, 생태환경, 과학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 '지역혁신가' 선정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균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전문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분야별로 최종 선정된 지역혁신가들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열리는 '2018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9월 6일~8일, 대전)에서 시상하고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장수군은 군청 별관 평생학습관에서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및 세부지침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사업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체 예산편성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내년 재정 운영의 방향을 민선 7기 공약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건전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선심성·낭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장수군 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사항과 장수군의 예산 편성방향을 안내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각종 제도 및 재정여건을 살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중점으로 예산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진안군은 28일 공무원과 이장, 부녀회장 등 군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군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법, 화재시 대피요령, 교통사고 예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라북도에서 위촉한 안전 분야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각 지역별 소방 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전담 소방관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분야는 교통약자 인식개선과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사례중심의 사고 동영상을 활용해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인 각 지역의 경찰관이 협업해 생활 밀착형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크고 작은 재난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안전 교육 강화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안전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물폭탄 맞은 장수군 호우피해 최소화 총력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재난대책본부 가동

장수군은 지난 26~27일 이틀 연속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기준 장수지역 누적 강수량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280mm에 달한다.

장수군은 연이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응급복구장비를 가동하고 피해지역 예찰활동 및 복구활동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지는 비 소식에 장수군 재난대책본부는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특보 발령 시 재난안내문자 발송, 재난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



장영수 장수군수가 28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게 상황전파를 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영수 장수군수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직접

점검했으며, "태풍 솔릭이 지나간 데 이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및 재산, 농작물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난예방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생활쓰레기 처리, 최적의 청사진 그린다

진안군 매립장 운영 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진안군은 28일 매립장 운영 최적화 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최적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진안군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에 대비하고 매립장 운영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위생적, 안정적,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와 진안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이항로 군수 주재로 매립장 주변마을 이장과 군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진안군의 변화된 여건을 분석·반영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관리체계, 매립장 관리현황, 잔여매립연한

예측결과 등을 공유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 매립연한은 약 28년으로 2046년까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예측됐으며 사용연한 도래 시 매립장 조성(대체)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매립장 최적화 방안으로는 폐기물처리의 안정성, 환경성, 정부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순환형 매립장과 기존 매립장 수직증설 방안 등이 제시돼 환경부의 폐기물 자원순환 및 매립장 최소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진안군 생활폐기물의 장기간 안정적 처리가 기대된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 매립장 운영(최적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진안군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고히 하고 국가예산확보와 폐기물처리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해 진안군 고유 브랜드인 청정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